

## 「부모 참 역량」 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유아와 아동 어머니의 역량을 중심으로\*

정계숙\*\*    권주연\*\*\*    최은아\*\*\*\*    김지연\*\*\*\*\*

Effectiveness of 「Authentic Parental Competence」 Consultant  
Development Program: Focusing on Parental Competence of Mothers  
with Preschool and Elementary School-Age Children

Chung, Kai Sook    Kyun, Ju Youn    Choi, Eun A    Kim, Ji Yeon

본 연구는 유아기와 아동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준전문가로서 「부모 참 역량」 컨설턴트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머니들의 「부모 참 역량」 증진 효과를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유아와 아동 어머니 14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부모 참 역량」 척도를 활용하여 이들의 「부모 참 역량」을 프로그램 사전, 사후에 측정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적용 후 어머니들의 「부모 참 역량」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개별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양적 분석 결과, 「부모 참 역량」 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은 어머니의 발달적 양육 역량을 비롯한 「부모 참 역량」의 5개 하위요인 모두의 증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나타났다. 질적으로는 어머니들은 대부분 본 프로그램에 참여 후 자신의 양육 역량(양육 지식의 변화, 부모 역할에 대한 반성적 태도의 태동), 자기체계 역량(어머니 자신에 대한 이해 및 존중적 태도, 남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자기 인식, 부모로서의 부드러운 시선 및 따뜻한 이해), 사회적 역량(지인에 대한 공감적 이해의 움직임, 「부모 참 역량」 컨설턴트로서의 역할 시도하기) 등의 변화를 이야기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부모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주제어 : 「부모 참 역량」, 부모교육 프로그램, 컨설턴트

\* 본 논문은 2011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1-330-B00168)  
\*\* 제 1저자 : 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교신저자 : 부산대학교 교육발전연구소 전임연구원(E-mail: juyoun1209@hanmail.net)  
\*\*\*\* 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BK21\* 연수연구원  
\*\*\*\*\* 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박사과정

## I. 서론

대부분의 부모는 자신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역할수행력을 향상시키고자 애쓰게 된다. 부모 교육 관련 연구자들은 이를 돕기 위해 직접 다양한 내용의 부모교육을 수행하거나 사회적 지지 체계 마련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급속한 변화에 따라 가치관 혼란, 교육과 학맥을 통한 사회적 성취, 경제적 양극화 및 치열한 경쟁적 풍토의 고착 등은 많은 부모로 하여금 자녀의 남다른 발달과 성취를 위한 역할 수행에 경쟁적으로 몰두하게 만들었다. 오늘날 이에서 과생된 사회구성원 전반의 심리적 불안과 불행감 등은 그동안 대부분의 한국사회 내 부모가 추구해왔던 자녀의 남다른 발달과 성취를 위한 역할 수행 능력의 추구를 넘어, 이제 자녀와 부모의 건강한 발달과 행복, 가치 있는 삶을 위해 부모의 역할수행 역량의 증진이 필요함을 인식해야 하는 관점 전환의 필요성을 촉발시켰다. 본 연구도 이러한 부모 역할과 역량 증진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되었다.

종래에 기업 문화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역량(competence)’이라는 개념이 차츰 문제해결 또는 적응적인 활동이라는 개념으로 확대되어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사용되면서(소경희, 2007) 부모교육 분야에서도 부모의 역량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많은 부모교육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역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부모 역량 증진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부모 역량 증진 관련 연구들의 경우, 자녀의 전인적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모의 역량 증진을 위해 부모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비롯한 부모의 적극적이고도 주체적인 사고와 행위 등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 역량 관련 연구들은 주로 자녀의 양육 관련 주제를 부모의 핵심 역량으로 보고 실시한 사례가 많이(정계숙, 유미숙, 차지량, 박희경, 2013; Doherty, 2000), 보다 역량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실시된 기존의 부모교육 프로그램들도 부모로서 함양해야 할 역량에 대해 전체적이고 통합적으로 접근하기보다 부모의 양육 관련 역량(김현자, 2007; 박상희, 2007; 박현숙, 구현영, 2010; 유연옥, 여혜련, 2004; 이민자, 김용미, 정명수, 2007), 자기체계 관련 역량(김경화, 2004; 김유순, 이국향, 2010; 노영천, 유순화, 2009; 이복순, 김경희, 2011), 사회적 역량(강선경, 2011; 김미숙, 2010) 등 목표 역량을 세분화하여 그 각각에 대해 독립적으로 접근한 방식이 대부분이었다.

반면 현 시대 아이들의 부모에게 요구되는 역량은 부모로서 자녀를 적절하게 양육해야 함을 강조하는 양육 역량, 부모이자 한 개인으로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발달시키려고 노력하는 자기체계 역량, 그리고 한 사회인으로서 사회적으로 잘 기능하며 적응적으로 살아가는 능력인 사회적 역량까지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역량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부모로서 가져야 할 양육역량, 자기체계 역량, 사회적 역량을 포괄한 개념을 정계숙, 최은실(2013)은 「부모 참 역량」이라고 명명한 바 있다. 이러한 부모역량 개념을 토대로 유아기(정계숙, 최은실, 2013) 및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정계숙, 고은경, 박희경, 차지량, 2014)의 「부모 참 역량」 척도가 개발된 바 있고, 일반유아와 아동 어머니의 「부모 참 역량」 증진 연구(정계숙, 유미숙, 차지량, 최은아, 박희경, 김지연, 2014)와 장애아 부모의 양육 역량 증진 연구(김은라, 박재국, 정계숙, 박수홍, 2014) 등이 실시되었다. 이들 「부모 참 역량」 증진 프로그램은 방법론 측면에서

부모 실천공동체를 구성하고 액션러닝이라는 과정 중심적인 문제해결 활동을 접목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여, 「부모 참 역량」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부모 역량의 개념을 도입함과 동시에 이를 증진시킬 수 있는 실제적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한편, 최근 ‘컨설팅(consulting)’이라는 개념이 금융, 설계, 경영, 건축, IT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다. ‘컨설팅’이란 어떤 특정분야에 대해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의뢰인의 문제를 진단·분석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해주고 의뢰인이 해결방안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문이나 조언을 제공해주는 서비스 활동(방미란, 2013)을 말하며, 이를 수행하는 사람을 ‘컨설턴트(consultant)’라 칭한다. 즉, 컨설턴트는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과정에서의 특수한 지식 체계를 보유한 전문가를 의미하며(Gallessich, 1982), 이들은 문제점을 분석하여 해결안을 제시함으로써 문제해결을 위한 의사결정에 도움을 준다. Kubr(1996)는 이러한 컨설턴트의 역할을 자원으로서의 역할(resource role)과 프로세스로서의 역할(process role)로 세분화한 바 있다(김도기, 2005, 재인용). 여기서 자원으로서의 역할은 컨설턴트가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제공하고 이들을 도와주는 것을 말하며, 프로세스로서의 역할은 컨설턴트가 변화 중개자로서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사람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말한다.

오늘날과 같은 평생학습사회에서는 해당 분야에서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역할 수행을 위해 자신에게 요구되는 역량이 무엇인지 알고 이를 개발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를 돕기 위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컨설턴트 양성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교육계에서도 교육의 질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방편으로 컨설팅과 컨설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부모교육 분야에서도 자녀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해 부모 역할의 효율성과 적절성 제고를 돕기 위한 부모 역량 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이 필요하겠다.

컨설턴트는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 전문 기술, 대인 기술 및 컨설팅 기술과 함께 의뢰인의 신뢰를 받게 되는 진정성(authenticity)이 핵심적인 역량과 자질로서 요구된다(박상완, 2008). 이에 컨설턴트가 갖추어야 할 역량의 중요성과 함께 컨설턴트로서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전문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Gill, Jan, Nancy, Bryan, Charlotte, & Ruth, 2009) 직무연수 형태로 컨설턴트에 대한 교육도 실행되고 있다(진동섭 외, 2008). 그러나 실제 교육 장면에서 필요한 컨설턴트 양성에 대해서는 학교운영 컨설턴트 양성(박효정, 김민조, 김병찬, 홍창남, 김지민, 2010; 박효정, 신철균, 박선환, 박호근, 김지민, 2011)이나 보육 컨설턴트의 역할과 자질(황해익, 조준오, 김병만, 2012) 및 수업 운영을 위한 학습컨설턴트의 역할(김정섭, 2009) 등 교육현장 관련 컨설턴트 양성에 관련된 연구가 소수 수행되었을 뿐 아직 연구가 크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편이다. 더욱이 부모교육 분야에서는 부모교육 전문가 양성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 외에 부모역할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턴트 양성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다.

높은 대인 관계 기술은 어떤 컨설턴트에게나 중요하지만, 부모 역량 컨설턴트가 가정 특수적, 자녀 특수적, 상황 특수적인 특징을 가진 복합적인 역할인 부모역할에 대해 효과적으로 컨설팅하기 위해서는 양육 상황에 대한 이해와 공감에 기반한 진정성과 부모들과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통한 부모와의 신뢰감 형성이 더욱 중요하다. 특히, 자녀의 발달적 변화가 가장 두드러지는 동시에 부모역할 경험은 제한된 유아와 아동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상황 중심의 부모 역할에 대한 학습 욕구가 가장 높을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어머니를 위한 부

모 역량 관련 컨설팅에 있어, 비슷한 연령대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양육의 어려움과 기쁨, 실제적인 문제를 공유하여 문제해결에 대한 공감적 동참이 극대화될 수 있는 같은 처지의 부모가 컨설턴트가 된다면 더욱 효율적일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의 타당성과 효용성은 미국에서 1960년대부터 부모교육에 있어서 비슷한 연령의 자녀가 있는 지역사회 내 어머니를 가정방문 교육자로 훈련하여 준전문가(paraprofessional)로 활용하는 시도가 있었고(Jester & Guinagh, 1983), 이후 많은 가정방문 부모교육프로그램이 다양한 어머니 준전문가를 활용함으로써 프로그램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하였던(Gomby, Culross, & Behrman, 1999; Katz, Jarrett, El-Mohandes, Schneider, McNeely-Johnson, & Kiely, 2011; Unger & Wandersman, 1988) 점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에 유아기, 아동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부모 참 역량」 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함으로써 부모교육 관련 프로그램의 다양화 시도 및 일반 어머니를 부모교육 준전문가로서의 「부모 참 역량」 컨설턴트로 양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아기와 아동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준전문가로서 「부모 참 역량」 컨설턴트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고 그 효과성을 알아보는 일련의 연구 중 하나로, 먼저 컨설턴트가 되기 위해 참여 어머니들에게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부모 참 역량」이 프로그램 참여 후 증진되었는지 그 효과를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본 프로그램을 통한 어머니의 부모 역량 증진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부모 참 역량」 척도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사전, 사후의 차이를 알아보고, 프로그램 실시 후 어머니들과의 개별 면담을 통해 부모 역량에 대한 질적 변화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이 시대 부모에게 요구되고 있는 「부모 참 역량」 증진을 돕는 다양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방법론에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부모 참 역량」 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은 어머니의 「부모 참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가?
- 2) 「부모 참 역량」 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참여 후 나타난 어머니들의 부모 역량의 질적 변화는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A시에 거주하는 유아동기 자녀를 둔 어머니 14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들 14명 중 7명은 B대학 부모행복지원센터와 연계되어 있는 유아교육기관(유치원,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어머니들이었으며, 4명은 A시 학부모지원센터를 통해 본 프로그램에 신청한 어머니들이고 나머지 3명은 이들의 지인이거나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어머니들이다. 비교적 소그룹 형태로 집단을 구성한 것은 부모역량 컨설턴트라는 동일한 목표를 가진 참여 어머니들 간의 상호교류 증진, 수업 진행과정에서의 학습자간 및 교수자-학습자간 학습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였다. 또한 유아동기 자녀의 어머니들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이 연령대 자녀의 발달

적 변화는 어느 때보다도 두드러지지만 부모역할 경험은 제한되어 부모역할 수행 상의 어려움과 문제 등으로 학습 동기가 높으며 자녀들의 연령 다양화가 어머니 간에 이전에 경험한 또는 앞으로 경험할 양육 관련 정보의 상호교환으로 단일 연령집단보다 동료 간 학습(peer learning)에 더 효율적일 수 있고, 실제로 참여 어머니들은 유아동기 자녀를 함께 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본 「부모 참 역량」 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 실시한 「부모 참 역량」 관련 윌레강좌에 최소 3회 이상 참석한 어머니들이며, 이들의 일반적인 배경은 <표 1>과 같다.

<표 1> 어머니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N=14)

	변인	n	%
어머니 연령	31세 이상 35세 이하	3	21.4
	36세 이상 40세 이하	7	50.0
	41세 이상	4	28.6
어머니 학력	고등학교 졸업	1	7.1
	대학교 졸업	11	78.6
	대학원 졸업	2	14.3
어머니 직업유무	직업 있음	1	7.1
	주부	13	92.9
가계 월평균소득	300만원-400만원	4	28.6
	401만원-500만원	6	42.9
	501만원 이상	4	28.6
자녀 연령 (중복)	만 0세-3세	7	30.4
	만 4세-6세	9	39.2
	초등학생 이상	7	30.4
자녀 성별	남아	3	21.4
	여아	4	28.6
	남아 + 여아	7	50.0
자녀수	1	3	21.4
	2	5	35.7
	3명 이상	6	42.9

## 2. 연구도구

프로그램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 도구는 첫째, 「부모 참 역량」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정계숙, 최은실(2013)이 개발한 「부모 참 역량」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부모로서 자녀를 적절히 양육하는 역량을 의미하는 양육역량, 한 개인으로서 자신의 심리적 측면에 대한 이해 및 관리 역량인 자기체계 역량, 사회 구성원으로 적절히 기능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의미하는 사회적 역량의 3개 영역에서 추출된 총 43개 하위요소로 이루어지며, 각 하위요소는 지식, 기술

및 태도에 관한 3개 하위문항을 포함하여 전체 12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발달적·긍정적 양육 능력’, ‘자기 이해와 대인관계 능력’, ‘자율적 행동 조절 능력’, ‘공동체 생활 능력’, ‘자기성장·관리 능력’의 5가지 구성요인으로 이루어진 본 척도의 각 항목은 6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각 하위요인별 역량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 참 역량」 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Cronbach  $\alpha$ 가 .98이며 각 하위 요인의 Cronbach  $\alpha$ 는 .96, .97, .90, .87, .81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사용한 ‘프로그램 만족도 평가지’는 김은라 외(2014) 연구에서 활용한 ‘프로그램 만족도 평가지’를 본 프로그램의 평가에 맞게 수정·보완하였으며, 유아교육전문가 1인이 이를 검토하였다. 평가지는 크게 프로그램에 대한 흥미도와 만족도, 참여도 및 프로그램의 질적 우수성 등에 관한 총 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혀 아니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평정척도이다. 또한 프로그램의 이점 및 개선점 등에 대한 부모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술형 1문항을 구성하였다.

<표 2> 「부모 참 역량」 척도의 하위요인별 요소 구성

하위요인	하위요소	문항 수	Cronbach $\alpha$
발달적· 긍정적 양육 능력	반응적·공감적 양육하기, 부모-자녀 관계 이해하기, 건강한 부모관 갖기, 민주적 양육 지향하기, 양육 효능감 및 만족감 갖기, 인내심 갖기, 자녀의 삶과 양육의 방향·목표 설정하기, 의사소통 기술 개발하기, 자녀 발달 특징과 욕구 이해, 자녀 학습 과정과 원리 이해, 자녀에 대해 믿고 기다려주기, 또래 관계 이해하기, 발달·학습 지원 환경 제공하기, 학교와 가정과의 관계 이해하기, 자녀 생애 진로 개발하기	45	.96
자기 이해와 대인관계 능력	행복한 관계에 대한 가치관 가지기, 타인에 관한 신뢰감 갖기, 친사회적 행동하기, 전생애적 대인관계의 중요성 알기, 양육 수행에 대한 성찰의 중요성 알기, 정직·공정하기, 협력하기, 행복한 가족 문화 조성하기, 긍정적으로 의사소통하기, 배우자로서 자기 이해·수용하기, 낙관적 태도 갖기, 개인으로서 자기 이해·수용하기, 부모로서 자기 이해·수용하기, 자아 존중감 가지기	42	.97
자율적 행동 조절 능력	자기 결정 능력 갖기, 독립적으로 행동하기, 능동적으로 행동하기, 자기 주도적으로 문제해결하기, 적절한 정서표현·조절하기, 자기 삶의 방향·목표 설정 및 실천하기	18	.90
공동체 생활 능력	주변의 문제 해결에 적극 관여하기, 사회 봉사하기, 공동체 정신 가지기, 주변 환경 조절 능력과 기회 개발하기, 주변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관리·개발하기	15	.87
자기성장· 관리 능력	지속적인 자기 성찰하기, 개인적 성취감 갖기, 강점 및 역량 개발하기	9	.81
총 문항	129		.98

### 3. 연구절차

#### 1) 「부모 참 역량」 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 (1) 프로그램의 목적 및 방향

본 「부모 참 역량」 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은 어머니들이 유아동기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험하는 부모역할 수행 및 부모됨의 어려움과 문제 등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모 역량의 증진과 함께 부모로서 자신의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부모들과 소통할 수 있는 컨설턴트로서의 역량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프로그램의 개발 방향은 첫째, 정계숙, 최은실(2013)의 「부모 참 역량」 개념을 차용하여 부모 역량을 자녀를 효율적으로 양육하는 양육 역량, 부모의 심신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발달시키는 자기체계 역량, 사회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회적 역량으로 정의한다. 둘째, 부모 역량의 기반이 되는 심리 내적 문제 및 사회적 문제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보다 종합적인 자기반성과 성찰을 통해 「부모 참 역량」이 증진될 수 있도록 내용을 계획한다. 셋째, 참여 어머니가 부모 역량 컨설턴트로서 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우리 사회의 교육 문제, 가족과 이웃의 행복 등 삶의 질 개선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존재로 자신을 인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내용을 계획한다. 넷째,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대상 어머니들의 생활과 일과를 프로그램 일정 계획에 반영해야 할 필요를 고려하여, 집중 프로그램 실시 전에 사전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으로서 10회 정도의 「부모 참 역량」 관련 월레강좌를 개최하여 컨설턴트로서 필요한 지식을 갖추 수 있게 한다. 다섯째, 프로그램은 사전에 계획된 프로그램의 틀에 따라 운영하되, 어머니들의 관심사나 욕구, 필요에 맞추어 융통성 있게 진행한다.

##### (2) 프로그램의 구성 및 내용

우선 사전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으로서 2013년 10월 12일부터 2014년 7월 11일까지 총 10개월 동안 매달 1차레 2시간씩 열리는 「부모 참 역량」 관련 월레강좌를 실시하였다. 본 월레강좌의 목적은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험하는 부모역할 수행 및 부모됨의 어려움과 문제 등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모 역량을 증진하기 위함이었으며, 특히 「부모 참 역량」을 양육 역량, 자기체계 역량, 사회적 역량으로 나누어 보다 포괄적 의미에서의 부모 역량을 증진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부모 참 역량」 관련 월레강좌를 통해 차후 컨설턴트로서 필요한 기본 지식을 갖추는 것을 기대하였다. 나아가, 월레강좌에 참여한 부모들은 대부분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문제해결 역량 증진의 필요성을 실감하면서 자신의 「부모 참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와 열정이 높았으며, 이러한 의지와 열정 등이 월레강좌의 참여 동기의 필수요건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부모 참 역량」 관련 월레강좌에 최소 3회 이상 참여한 부모들을 대상으로 2014년 8월 11일 ~ 8월 13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집중적인 「부모 참 역량」 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집중교육 프로그램의 일정 계획 시 사전 조사를 통해 어머니들이 가장 선호한 시간대와 일정을 반영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개최 장소의 경우,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머니의 인원수 대비 공간의 크기나 분위기를 고려하여 대학 내 소강의실에서 본 프로그

램을 진행하였으며, 어머니들이 프로그램 내외에서 지속적으로 학습하여 지식 및 전문성을 공유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적절하게 물리적·심리정서적 지원을 하였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 실제에 있어서 사전에 계획된 주제와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하기는 하였으나, 각 주제별 전문가로 이루어진 강사진들은 매 차수마다 어머니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 및 관심사를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대부분 부모교육 관련 전문가들이기도 한 강사진은 대부분 양육과 관련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적 지식 및 기술 등의 팁을 제공하기도 하였으며, 부모들은 이에 적극적인 공감하는 태도를 나타냈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자신의 부모 역할에 대한 실제 사례를 소개할 경우, 전문가인 강사의 피드백 외에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어머니들이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을 토대로 적절한 답을 제시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어머니들의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참여가 이루어졌다.

사전에 실시된 「부모 참 역량」 증진 윌레강좌와 「부모 참 역량」 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의 구성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 3>, <표 4>와 같다.

<표 3> 「부모 참 역량」 증진을 위한 윌레강좌의 구성 및 내용

차수	날짜	주제	내용
1	2013년 / 10월 12일	부모 성격 이해와 양육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 자신의 성격 유형 이해</li> <li>• 부모 자신의 성격과 양육방법 연결 지어 생각해보기</li> </ul>
2	11월 8일	부모 성격 이해와 양육 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 자신과 자녀의 성격유형에 따른 양육</li> <li>• 부모 자신과 자녀의 성격 강점</li> </ul>
3	12월 13일	부모 공감 능력의 개발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유아기 자녀 양육에서의 공감의 중요성</li> <li>• 공감 능력의 개발 방안 안내</li> <li>• 반성적 사고 및 자아성찰의 시간 갖기</li> </ul>
4	2014년 / 1월 10일	부모 공감 능력의 개발 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 청소년기 자녀 양육에서의 공감의 중요성</li> <li>• 공감 능력의 개발 방안 안내</li> <li>• 반성적 사고 및 자아성찰의 시간 갖기</li> </ul>
5	2월 14일	부부관계에서의 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한 부부관계의 중요성</li> <li>• 배우자로서의 자신에 대한 이해 및 수용</li> <li>• 긍정적 부부관계에 있어서의 자신의 역할 및 태도</li> </ul>
6	3월 14일	부모 자신에 대한 이해와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로서 자신의 대상관계에 대한 이해 및 양육 (대상관계 이론을 중심으로)</li> </ul>
7	4월 15일	부모-자녀 간 건강한 의사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자녀 간 원활한 의사소통과 자녀 발달</li> <li>• 부모-자녀 간 건강한 대화 방법</li> </ul>
8	5월 16일	부모와 자녀의 자아존중감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와 자녀의 자아존중감 간의 연관성</li> <li>• 부모와 자녀의 자아존중감 증진 방안</li> </ul>
9	6월 13일	자녀를 위한 부모의 바람직한 정서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 자신의 정서 이해</li> <li>• 부모의 바람직한 정서 표현 및 조절 능력 증진 방안</li> </ul>
10	7월 11일	아이와 함께 자라는 부모: 자녀 생애주기별 「부모 참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 생애주기별 「부모 참 역량」 및 증진 방안</li> <li>• 행복하고 따뜻한 공동체 형성을 위한 부모의 역량</li> </ul>



<표 4> 「부모 참 역량」 컨설턴트 프로그램 구성 및 내용

날짜	시간	주제	내용
8월 11일 (월)	1차시 (10시-12시)	「부모 참 역량」 개발과 컨설턴트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프로그램 참여 동기 및 자기소개 시간 갖기</li> <li>우리 사회의 부모역할 및 양육 관련 문제</li> <li>「부모 참 역량」의 개념 이해</li> <li>부모 컨설턴트로서의 역할과 자질 탐색</li> </ul>
	2차시 (1시-3시)	부모로서 나의 발달과 성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인으로서의 자신의 발달 및 성숙</li> <li>부모로서의 자기 자신 되돌아보기</li> <li>자녀를 지원하는 부모로서의 성장 및 발달</li> </ul>
	3차시 (3시-5시)	부모 행복과 자녀 행복의 의미와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복의 의미</li> <li>한국사회 행복의 특징 / 한국사회 부모들의 특성</li> <li>부모 행복과 자녀 행복의 조건</li> <li>부모와 자녀의 행복을 위한 팁 소개</li> </ul>
8월 12일 (화)	1차시 (10시-12시)	유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아개념 및 자기 인식 이해</li> <li>자아존중감의 정의 및 자아존중감 영향 요인</li> <li>자녀의 자아존중감 증진을 위한 양육법</li> <li>도덕성을 키우는 양육법</li> </ul>
	2차시 (1시-3시)	유아동의 발달과 학교 적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아동의 학교 적응</li> <li>학교적응의 성공요인</li> <li>발달과 적응 / 적응과 학습</li> </ul>
	3차시 (3시-5시)	발달 이상의 진단과 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발달장애의 정의 및 종류</li> <li>발달장애의 주요증상 및 임상 특성</li> <li>원인 및 치료적 접근</li> </ul>
8월 13일 (수)	1차시 (10시-12시)	모자애착과 유아동의 정신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애착의 기능 및 유형</li> <li>애착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li> <li>행복한 아이로 키우는 방법</li> </ul>
	2차시 (1시-3시)	건강한 부모-자녀관계를 위한 부모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강한 부모역할의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를 돌보는 역할</li> <li>- 자녀를 사회화시키는 역할</li> <li>- 부모-자녀의 심리발달 과제를 조화시키는 역할</li> <li>- 양방향적 매개자(agent) 역할</li> </ul> </li> </ul>
	3차시 (3시-5시)	학교(유아교육기관) 변화의 참여 증진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재의 학교와 교육의 모습</li> <li>부모의 사회적 역량</li> <li>부모와 교사, 그리고 교육공동체</li> <li>학교의 변화 방향과 부모</li> </ul>

## 2) 프로그램의 효과 평가를 위한 검사 및 인터뷰

본 연구는 연구대상 어머니들로부터 연구 참여 동의여부를 개인적으로 물어본 후 참여 의사를 밝힌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본 「부모 참 역량」 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의 효과를 양적, 질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부모 참 역량」 검사와 프로그램 만족도 평가지를 활용하였다. 「부모 참 역량」 검사는 프로그램의 사전과 사후에 한번 씩 실시하였으

며,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평가지는 사후에 한 번 실시하였다. 또한 어머니들의 프로그램 참여 경험의 의미와 프로그램을 통한 변화, 앞으로의 부모 역량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기대 및 바람을 알아보기 위해 본 프로그램이 끝난 후인 2014년 8월 18일 ~ 8월 22일 사이에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다. 어머니 개별 면담은 어머니들이 원하는 시간대를 사전에 조사하여 조용하고 크기가 작은 방에서 1명 당 약 1시간 ~ 1시간 30분 정도의 시간 범위에서 실시되었다.

#### 4. 자료 분석

본 연구는 어머니들의 「부모 참 역량」 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을 통한 전문가로서의 부모 역량 증진과 프로그램 참여 경험의 의미 및 변화 등을 살펴보기 위해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를 함께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양적으로는 프로그램 실시 전과 후의 「부모 참 역량」 점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질적으로는 프로그램 실시 후 어머니들의 부모 역량의 질적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개별 면담한 전사 자료를 「부모 참 역량」의 3대 영역인 양육 역량, 자기체계 역량 및 사회적 역량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연구문제 1은 PASW 18.0을 활용하여 「부모 참 역량」 척도의 전체 및 하위요인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Shapiro-Wilks로 정규성을 검증한 후 사전-사후검사 점수 간에 t-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2는 「부모 참 역량」 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나타난 어머니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 생각, 자신의 인식 및 태도 변화, 참여 경험의 의미, 앞으로의 부모 역량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기대 및 바람 등을 살펴보기 위해 프로그램 실시 후 개별 면담한 전사 자료를 연구자들이 수차례 검토하였으며, 이를 통해 어머니들의 개별 변화를 파악한 후 공통된 변화의 흐름 및 프로그램의 기대와 바람 등을 분석하고 범주화하였다. 그리고 전사본을 살펴보며 범주에 적합한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찾아내었으며, 질적 자료의 분석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관성을 배제하기 위해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진행에 동참한 유아교육전문가인 교수 1인을 포함한 연구자 4인이 함께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 Ⅲ. 연구결과

#### 1. 프로그램의 양적 효율성

##### 1) 「부모 참 역량」 점수의 변화

먼저 본 프로그램 실시 전후 「부모 참 역량」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변화를 알아보았는데, 특히 「부모 참 역량」 하위요인 중 ‘발달적·긍정적 양육능력’의 사전( $M=3.97, SD=.44$ )과 사후( $M=4.60, SD=.44$ ) 평균 및 표준편차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가장 컸으며, ‘자기성장과 관리 능력’의 사전( $M=3.90, SD=.57$ ), 사후( $M=4.17, SD=.55$ ) 점수간의 차이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t-검정한 결과, ‘발달적·긍정적 양육 능력( $t=-7.65, p<.001$ )’, ‘자기 이해와 대인관계 능력( $t=-5.09, p<.001$ )’, ‘자율적 행동 조절 능력( $t=-8.43, p<.001$ )’, ‘공동체 생활 능력

( $t=-2.79, p<.05$ )’, ‘자기성장·관리 능력( $t=-3.42, p<.01$ )’ 등 「부모 참 역량」의 모든 하위요인과 「부모 참 역량」 전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부모 참 역량」 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어머니들의 「부모 참 역량」이 전체적으로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 본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구체적인 사전, 사후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의 <표 5>와 같다.

<표 5> 「부모 참 역량」 전체 및 하위요인별 사전-사후검사 결과 (N=14)

하위요인		M	SD	t
부 모 참 역 량	발달적·긍정적 양육 능력	사전 3.97 사후 4.60	.44	-7.65***
	자기 이해와 대인관계 능력	사전 4.30 사후 4.64	.45	-5.09***
	자율적 행동 조절 능력	사전 3.93 사후 4.38	.39	-8.43***
	공동체 생활 능력	사전 4.08 사후 4.39	.52	-2.79*
	자기성장·관리 능력	사전 3.90 사후 4.17	.57	-3.42**
	전체	사전 4.08 사후 4.53	.40	-8.66***

\* $p<.05$ , \*\* $p<.01$ , \*\*\* $p<.001$

## 2)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프로그램 실시 후 연구 대상인 어머니들에게 본 프로그램 전체 과정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해 질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프로그램에 대한 어머니들의 만족도는 전체 평균이 4.40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프로그램 과정에 집중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와 ‘프로그램의 내용이 흥미로웠다’, ‘프로그램이 나에게 적절한 내용을 다루었다’의 문항에 대한 반응 평균은 각각 4.64, 4.57, 4.50으로 모두 4.50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나타내어 본 프로그램에 대해 매우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프로그램의 만족도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의 <표 6>과 같다.

<표 6>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N=14)

하위문항		M	SD
프 로 그 램 에 대 한 만 족 도	프로그램의 내용이 흥미로웠다.	4.57	.51
	프로그램이 나에게 적절한 내용을 다루었다.	4.50	.59
	프로그램 과정에 집중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4.64	.50
	다른 어머니들과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4.29	.61
	프로그램 연수 기간(시간)이 적절하였다.	4.00	.56
전체	4.40	.55	

## 2. 프로그램의 질적 효율성

어머니들은 대부분 본 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참여 후 「부모 참 역량」에 질적인 변화를 보였다. 즉, 양육 역량(양육 지식의 변화, 부모 역할에 대한 반성적 태도의 태동), 자기체계 역량(어머니 자신에 대한 이해 및 존중, 남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자기 이해, 부모로서의 부드러운 시선 및 따뜻한 이해), 사회적 역량(지인에 대한 공감적 이해의 움직임, 「부모 참 역량」 컨설턴트로서의 역할 시도하기)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음을 이야기하였다.

### 1) 양육 역량의 변화

양육 역량은 부모로서 자녀를 적절하게 양육하는 것에 초점을 둔 역량으로, 본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어머니들이 느낀 양육 역량에 대한 변화는 첫째, 양육 지식과 같은 인지적 측면에서의 변화, 둘째, 보다 나은 부모 역할에 대한 관심 증진 및 역할을 잘 해나가고자 하는 마음가짐 등 양육자로서 부모 역할에 대한 생각의 변화이다.

#### (1) 양육 지식의 변화

본 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참여 후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자녀를 키우는데 있어서 부모가 갖추어야 할 양육 지식이 증가하였다고 체감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연령별 자녀 발달에 따른 특징이나 욕구 등이 다르므로 이에 대한 이해 증진과 반응적이고 공감적 양육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 및 공감 방법 등을 알게 된 점, 부모가 우선 일상생활에서 행복감을 느끼고 건강한 부모관이나 교육관 등을 가져야 올바른 양육이 될 수 있다는 점, 양육 시 부모-자녀 간 문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보다 바람직한 대처 방법을 습득하게 된 점 등이 그것이다.

아이들을 키울 때 잘 공감해주고 수용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싸움이나 갈등이 생겼을 때 내가 해결해주는 것보다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 중요하고, 또 아이들이 커가면서 발달이나 요구하는 게 다르니까 그에 적절하게 반응한다던지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E 어머니 면담, 2014. 8. 21)

예전 같으면 회초리 가지고 ‘손 대!’ 했을 일도 지금은 ‘반성의 시간을 갖자’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그래요. 그리고 문제집을 풀고 나면 ‘너무 힘들었지’ 라고 이야기도 해주고... - 중략 -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 아버지에게 산수를 배웠는데 그 때 아버지가 너무 호되게 혼을 내었거든요. 그 때 너무 무서웠는데 어느 순간 저도 제 아이에게 그러고 있더라구요. - 중략 - 프로그램을 통해서 ‘안 그래야지!’ 라고 많이 생각했어요. (D 어머니 면담, 2014. 8. 21)

#### (2) 부모 역할에 대한 반성적 태도의 태동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자신이 해야 할 부모 역할에 대해 관심이 많고, 또한 부모 역할을 잘 수행해나가고자 할 것이다.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부모들 또한 평소 부모 역할에 대해 관심이 많았으나, 본 프로그램을 통해 긍정적인 부모 역할 수행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더욱 증진되었음을 밝혔다. 즉, 앞서 언급한 양육 지식의 변화 이 외에도 자신이 습관적으로 해오던 부모

역할 태도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자세와 마음가짐을 취하면서, 과거에 수행한 자신의 부모 역할 행동에 대한 반성의 시간을 가짐과 동시에 앞으로 자신이 가져야 할 바람직한 태도의 변화도 야기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석하면서 부모 역할이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구요, 더 진심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열정이 더 생겼다고 할까요? 아이 키우면서 정말 힘든 일도 많은데요, 그럴수록 부모로서 더 노력해야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반성이 많이 되었어요. (C 어머니 면담, 2014. 8. 19)

부모 역할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어요. - 중략 - 강의 들은 후에 제 아이에게도 엄마는 아직 엄마 역할을 잘 하지 못해.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학교 가서 공부하고 배워온 거야. 네가 시험 점수를 올리듯이 나도 점수를 조금 올렸어' 라고 이야기도 했어요. 제가 부모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잘 하기는 하는지 반성을 많이 한 시간 같구요, 앞으로도 많이 고민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D 어머니 면담, 2014. 8. 21)

## 2) 자기체계 역량의 변화

부모이자 한 개인으로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발달시키려고 노력하는 부모의 역량을 자기체계 역량이라고 정의할 때,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프로그램 실시 후 우선 어머니 자신에 대한 이해 및 존중의 태도가 증진하였고, 남편의 배우자로서의 자기 이해 및 부모로서의 부드러운 시선과 따뜻한 이해 또한 긍정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음이 드러났다.

### (1) 어머니 자신에 대한 이해 및 존중

본 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어머니들은 대부분 정서적 안정감과 공감 능력, 자신감 향상 등을 경험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 이는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많은 수의 어머니가 가정주부였으므로 이들이 지역 내 대학에서 부모교육 관련 전문가 집단으로 강사진이 이루어진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삶의 활력이 되었고,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거나 양육과 인생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모들의 참여율이 높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마음의 위안과 위로를 받게 되었으며, 심리정서적 안정감도 느끼게 되었다. 또한 함께 자녀를 키우고, 부모로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 과정에서의 기쁨과 즐거움, 어려움과 고민 등을 진솔하고 꾸밈없이 대화하면서 자신의 공감 능력도 증진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사람이 인생을 건강하게 살아감에 있어서 자신감과 자존감은 필수불가결한 요소 중 하나이며, 이러한 자신감, 자존감은 자녀 양육에 자신의 개인적 시간, 노력, 열정, 에너지 등을 모두 바치는 어머니에게 더욱 필요한 특성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자신감은 자기 스스로의 경험에 의해 생길 수도 있으나, 타인을 만나 이들로부터 격려 받고 위로받고 긍정적인 강화를 받음으로 인해 증진될 수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본 프로그램을 구성한 강사진과 참여 어머니들 간의 만남, 이해 및 소통 등을 통해 어머니들은 새로운 자신감 및 자존감을 형성하고 자기정체감을 다듬기 시작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 자신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나 자신을 생각해보는 시간도 가져보고, 또 내가 무엇을 할 때 행복함을 느끼는지, 내 강점이 무엇인지... - 중략 - 그리고 저 스스로 잘 할 수 있다는 동기부여가 된 것 같기도 하구요.

(K 어머니 면담, 2014. 8. 19)

컨설턴트 양성 과정이라고는 하지만 그것보다 저는 저를 위해서 오게 되었고, 또 많이 얻어가는 것 같아요. - 중략 - 평소에 저는 저 자체에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와서 제 단점이나 문제점도 알았지만, 제가 강점도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구요. 아직 부족한 게 많지만 자신도 생긴 것 같아요.

(E 어머니 면담, 2014. 8. 21)

지금껏 자꾸 바깥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이 조금씩 해결되니 제가 여유로워지고 좋아지는 것 같아요.

(F 어머니 면담, 2014. 8. 22)

## (2) 남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자기 이해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어머니들은 자신뿐 아니라 함께 가정을 꾸려나가는 남편에 대한 자기 인식에도 변화를 보였다. 예를 들어, 본 프로그램의 내용 구성 시 ‘부부 성격의 이해’ 나 ‘부부관계에서의 나’ 등과 같은 주제 및 내용을 다룰 때 적극적으로 강좌에 참여함으로써 어머니 자신의 성격뿐 아니라 남편의 성격에 대해 스스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남편의 강점을 보려고 애쓰고 긍정적인 부부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공감 능력이 토대가 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자각하려는 모습이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남편의 배우자로서의 자기 이해 증진 및 적절한 정서 조절로 인해 실제로 어머니들의 부부싸움 횟수도 감소하고 있음을 경험하고 있었다.

강의 중에 부부관계가 중심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다보니 남편에 대한 신경을 더 써야 할 것 같더라구요. 부부 사이가 좋아야 우리 아이가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그러잖아요. - 중략 - 예전에 아이들에게 싸우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준 게 미안하기도 하구요. 프로그램에 참여하다보니 남편의 좋은 점을 더 많이 보려고 하고 있어요. (웃음)

(C 어머니 면담, 2014. 8. 19)

최근 들어 남편과 많이 싸웠어요. 아이 키우는 문제도 그렇고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 중략 - 그런데 (프로그램 참여 후)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남편 성격이나 좋은 점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이해하게도 되고 ‘이 사람이랑 나랑은 다르니까 그런 거구나~’ 하고 깨달아서 마음도 좀 편해지고 그러다보니 감정조절도 좀 더 되고 덜 싸우는 것 같기도 하고, 암튼 그래요.

(J 어머니 면담, 2014. 8. 18)

## (3) 부모로서의 부드러운 시선 및 따뜻한 이해

어머니들에게 나타난 태도의 자신의 변화는 앞서 언급한 자신 및 남편에 대한 것 뿐 아니라 자녀에 대한 변화도 포함되었다. 흔히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어머니들은 기쁨, 즐거움, 행복, 뿌듯함, 만족감 등과 같은 긍정적 심리 상태를 경험할 뿐 아니라 짜증, 우울, 분노, 서운함 등의

부정적 심리 상태도 느끼게 된다.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머니들도 자녀와 함께 생활하면서 이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자주 느끼곤 하였는데, 프로그램 참여 후 어머니들은 자녀의 입장에서 아이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적극적, 주도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실제 짜증은 내는 횟수가 줄고, 자신의 얼굴 표정에도 변화가 나타나는 등의 경험을 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 이는 자녀에 대한 어머니 자신의 긍정적 태도 변화가 곧 자신의 신체적, 심리적 상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아이를 더 사랑스럽게 바라보게 되었다고 할까요? 프로그램이 하루 종일 이루어지긴 했지만 늘 아이를 생각하면서 듣잖아요. 그러다보니 저녁에 집에 가서는 힘들긴 하지만 더 긍정적으로 아이를 바라보려고 하는 마음이 드는 것 같았어요.

(B 어머니 면담, 2014. 8. 19)

자녀를 대하는 모습이 더 너그러워졌다고 해야 할까? 그 전에는 아이들이 무엇을 해도 잔소리부터 나왔는데 프로그램에 참석한 후에는 웬만하면 아이를 공감하려고 하고,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좀 바뀐 것 같아요. - 중략 - 아이의 생각이 제 생각이랑 똑같은 줄 알고 보통 제가 원하는대로 하자고 했는데 이제는 아이한테 자주 물어보려고 하고 그래요.

(K 어머니 면담, 2014. 8. 19)

예전에는 그냥 귀찮아서 회피했던 일도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이해해보려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 중략 - 확실히 아이들 짜증이 줄고, 표정도 밝아지고 하다보니 저도 기분 좋더라구요.

(G 어머니 면담, 2014. 8. 22)

### 3) 사회적 역량의 변화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적으로 잘 기능하고 적응적으로 살아가는 능력을 사회적 역량이라고 정의할 때, 부모를 부모로서만 바라보고 사회구성원으로 보는 시각이 결여되어 부모가 자녀야 하는 역량 중 그동안 가장 그 중요성이 부각되지 않았던 역량(정계숙, 최은실, 2013)이 바로 사회적 역량일 것이다. 한 번의 프로그램 참여로 인해 개인이 가지고 있던 사회적 역량이 크게 변화하지는 않겠지만,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프로그램 참여 후 지금껏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지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였으며, 지인들의 인식 또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 「부모 참 역량」 컨설턴트로서의 첫 걸음을 내딛는 느낌도 받았다고 밝혔다.

#### (1) 지인에 대한 공감적 이해의 움직임

한국사회 내 전형적인 가족 문제에 있어서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고부간의 갈등일 것이다.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머니들도 이 중 적지 않은 수가 시어머니와의 갈등, 즉 고부갈등을 느끼고 있었으며, 이에 대해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거나 현재 겪고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본 프로그램 참여 후 온전히 갈등이 해결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나, 시어머니를 바라보는 자신의 시선이 조금 더 너그러워지고 문제가 될 만한 상황에 있어서 논제를 시어머니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대한 덮어두기 식의

회피적 태도가 아닌,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하기 위한 태도를 취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옛날에는 시어머니가 집에 오셔도 TV만 보시고 저를 도와준 적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저한테나 아이들에게 상처 주는 말도 많이 하시고 해서 힘들었는데요, 지금은 조금 나아졌어요. 저도 제가 하고 싶은 말 조금씩 어머니에게 하구요, ‘어머니도 힘드시겠지’ 생각하면 공감도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자꾸 제 생각만 했다면 지금은 어머니 입장에서 생각도 하려고 그래요.

(G 어머니 면담, 2014. 8. 22)

사실 저는 아이를 시어머니가 일 있을 때마다 봐주시는데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하셨어요. 저도 마찬가지구요. 키우는 방식이 서로 안 맞을 때는 서운하기도 하고, ‘또 그러시나보다’ 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그러다보면 대화를 깊이 있게 하기보다 그냥 ‘네!’ 하고 넘어갈 때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 중략 - 지금은 어머니 생각도 조금씩 하게 돼요. 어머니가 속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어머니 기분 안 나쁘게끔 좋게 말하려고 하고 그래요. 아직 많이 부족한데요, 더 노력해야죠.

(L 어머니 면담, 2014. 8. 19)

## (2) 「부모 참 역량」 컨설턴트로서의 역할 시도하기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어머니들은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자신이 지인들에게 부모 컨설턴트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즉, 어머니들은 주변 사람들의 양육문제 해결에 적극적이고 열의 있는 태도를 취하게 되었는데, 예를 들어, 프로그램 수행 전의 경우 단지 자신의 양육 경험을 바탕으로 한 조언이나 충고 등을 해주었다면, 프로그램 수행 후에는 자신이 잘 몰랐던 양육 지식이나 기술에 대해서도 책이나 인터넷 등을 찾아 의도적으로 더 가르쳐주려고 한다거나, 타인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태도가 적절히 조합되어 다소 부족하긴 하나 부모 컨설턴트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였음을 밝혔다. 또한 어머니들의 컨설턴트 역할로 인해 어머니에 대한 지인들의 인식이나 태도 또한 조금씩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어머니들은 앞으로 부모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 기술, 태도 등의 「부모 참 역량」을 골고루 갖춘 부모 컨설턴트로서의 모습도 기대하고 있었으며, 본 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과 같은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었다.

아직 많이 부족하겠지만 컨설턴트로서 자신감이 조금 생긴 것 같아요. 엄마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까, 만약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게 된다면 혹 부족한 부분은 더 배우고 알아서 도와주면 되니까 처음에 걱정했던 것보다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B 어머니 면담, 2014. 8. 19)

이번 부모교육 프로그램 끝나고 가족들이랑 1박 2일로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가서 아빠(남편)랑 많은 이야기도 하고 제가 여기서(프로그램) 배웠던 것을 이야기도 하다 보니 저뿐만 아니라 남편도 ‘앞으로 좋은 아빠가 되어야겠다’ 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직접 배우지는 못했지만 아이들하고 있을 때 더 이야기 잘 들어주고 같이 놀아주려고도 하고... - 중략 - 제가 이번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나서 아빠(남편)도 변화하는 것 같아 좋구요, 아빠들, 남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생기면 좋겠어요.

(M 어머니 면담, 2014. 8. 21)



어머니: 언니가 구미에 사는데요, 제가 이 프로그램 다녀와서 언니한테 전화해서 오늘 배운 내용은 뭐고, 뭐고...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니 언니가 저 덕분에 많이 배운다고 하기도 하고, 또 저를 부러워하더라구요. 이런 강좌가 열려서 좋겠다구요. - 중략 - 또 모르는 게 있으면 제가 책도 찾아보고, 인터넷도 찾고 해서 가르쳐주고 그러거든요.

연구자: 그런 어머니의 역할이 부모 컨설턴트로서의 역할 아닐까요?

어머니: 그러게요. (웃음)

(F 어머니 면담, 2014. 8. 22)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부모 참 역량」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의 한 방법으로, 유아와 아동 어머니를 대상으로 「부모 참 역량」 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고 일차적으로 대상 어머니의 「부모 참 역량」 증진 효과를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모두 프로그램 참여 후 ‘발달적·긍정적 양육 능력’, ‘자기 이해와 대인관계 능력’, ‘자율적 행동 조절 능력’, ‘공동체 생활 능력’, ‘자기성장·관리 능력’ 등 「부모 참 역량」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이는 본 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의 내용과 방법이 「부모 참 역량」을 증진시키는데 적절하였음을 의미한다. 기존에 실시되었던 대부분의 부모지원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의 교육목표가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 지식, 기술, 태도의 향상에 편중되어 있거나(정계숙, 최은실, 2013),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단편적이고 일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류수민, 이연선, 이소민, 정계숙, 2014; 배지희, 조미영, 봉진영, 김은혜, 2011; 이원영, 이태영, 강정원, 2008), 본 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은 장기적인 계획 하에 사전 교육 및 집중 교육을 상호 연관적으로 구성하였던 점이 주효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즉, 집중적인 「부모 참 역량」 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 어머니들은 이미 10개월에 걸친 「부모 참 역량」 관련 월례강좌를 최소 3차 이상 참여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얻은 사전 지식과 경험이 어머니의 사고 확장 및 역량 증진을 이루는데 기초가 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3일 동안의 집중 교육도 사전 조사를 통하여 어머니들의 일정과 수업 욕구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였기 때문에 어머니들의 참여도를 높인 결과 「부모 참 역량」에서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부모 참 역량」 하위요인 중 ‘발달적·긍정적 양육능력’ 요인의 변화가 다른 하위요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 개인으로서의 역량이므로 그 변화에 다소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 ‘대인관계 능력’이나 ‘공동체 생활 능력’ 등에 비해, ‘발달적·긍정적 양육능력’은 부모기 초기 단계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게 되는 자녀양육 실체에 직접 연관된 요인으로 어머니들의 지식 습득의 욕구가 매우 높고 습득된 지식을 빠르게 실천적 사고 및 행위로 이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큰 변화가 가능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둘째, 본 프로그램 참여 후 나타난 어머니들의 「부모 참 역량」의 질적 변화를 분석한 결과, 어머니들은 양육 지식과 같은 인지적 측면에서의 변화와 부모 역할에 대한 반성적 태도의 태동

등 자신의 양육 역량에 변화가 있었음을 밝혔다. 또한 어머니 자신에 대한 이해 및 존중, 남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자기 이해, 부모로서의 부드러운 시선 및 따뜻한 이해 등의 자기체계 역량, 그리고 주변 지인들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부모 참 역량」 컨설턴트로서의 역할 수행을 시작하는 등 사회적 역량에서도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볼 때, 본 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은 「부모 참 역량」의 여러 측면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낸 주요 결과 중 하나는 어머니 자기 자신에 대한 변화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머니들은 본 프로그램 참여 자체가 자신의 삶에 있어서 하나의 활력이 되었다고 생각하였으며, 함께 비슷한 연령대의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 살아간다는 유사한 상황에 속해 있음으로 인해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고, 진솔하게 대화하면서 심리·정서적 안정감과 더불어 자신의 공감 능력도 증진되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나아가, 어머니들은 타인을 만나 이들로부터 격려 받고 위로받고 긍정적인 강화를 받음으로써 자신감이나 자존감을 느끼기도 하였다고 말하였다. 이는 앞서 밝힌 바 있듯이, 「부모 참 역량」의 개념 속에 자기체계 역량을 포함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한 결과로 짐작된다. 이러한 부모의 자기체계 역량 증진에 관한 유사한 맥락의 연구로 강영순, 김중남(2012)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부모 자신의 개인 내적 성장을 돕고 동시에 자녀를 둔 어머니에게 필요한 양육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참여 어머니들의 부모효능감 및 자아분화 수준이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자기 이해와 자기성찰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보고하고 있는 바,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부모됨에 대해 깊이 탐색하고 부모역할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증진하기 위해 전환적 접근 방식을 채택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홍콩의 부모들이 개인 내적 성장과 부모됨에 대한 역량 강화를 언급하며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주장한 To, lu Kan, Tsoi와 Chan(2013)의 연구도 본 연구결과와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어머니의 역량 변화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부모에게 요구되는 역량과 관련하여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셋째,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머니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상당히 높은 만족도는 「부모 참 역량」 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이 개인적, 사회적 필요성을 충족시켜준 유의미한 프로그램임을 알게 해준다. 특히, 만족도 문항 중 ‘프로그램 과정에 집중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와 ‘프로그램의 내용이 흥미로웠다’, ‘프로그램이 나에게 적절한 내용을 다루었다’의 문항에 대한 반응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은 유아와 아동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한 본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동기 고양의 효과를 잘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어 좋았고, 프로그램에 만족한다(G 어머니 면담, 2014. 8. 22)’와 ‘일단 제 마음이 편해졌어요. -중략- 심리 상담을 받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다음에도 이러한 프로그램이 많이 열리면 좋겠어요(C 어머니 면담, 2014. 8. 19)’라고 이야기한 어머니들과의 면담 및 면담 시 나타난 전반적인 긍정적 분위기, 어머니들의 비언어적 상호작용(표정, 몸짓 등) 등에서도 드러나고 있었다. 이러한 높은 만족도는 본 프로그램의 주제와 내용 구성이 「부모 참 역량」의 개념을 자녀 양육과 관련된 지식, 기술, 태도에 한정하지 않고, 자녀를 적절하게 양육하는 양육 역량, 자신의 심신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발달시키는 자기체계 역량, 사회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 형성 및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회적 역량 등을 폭넓게

포함하여 구성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연구절차 부분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프로그램의 방법적 측면에 있어서 각 주제별 전문가로 이루어진 강사진들이 대부분 부모교육 전문가들로서 양육 관련 전문 지식, 경험적 지식 및 기술 등의 팁을 제공하고, 어머니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 및 관심사를 자유롭게 나누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나아가 어머니가 자신의 부모 역할에 대한 실제 사례를 소개할 경우, 강사의 피드백 외에 다른 어머니들이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을 토대로 적절한 답을 모색해보도록 유도하여 어머니들의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참여가 이루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즉, 본 프로그램의 적절한 구성 방향과 내용, 방법 등을 통해 긍정적인 부모 역량의 변화를 느끼면서 어머니들은 본 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대해 높은 만족감을 가지게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어머니들의 긍정적 변화는 본 「부모 참 역량」 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운영상의 몇 가지 특징에도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본 프로그램은 이전 월례강좌가 실시되었던 건물과 같은 곳에서 진행되었으며, 참여 어머니들 또한 기존에 월례강좌에 참석을 하셨던 분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서로에게 전혀 낯선 사람이 아니었다. 또한 비교적 소그룹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 참여 어머니들 간의 래포 형성 뿐 아니라 수업 진행과정에서도 매우 우호적인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었다. 프로그램이 수행된 3일 동안 어머니들은 자발적으로 매일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음식(간식)을 집에서 만들어와서 자칫 형식적일 수 있는 교육의 장(場)을 편안하고 화기애애한 친밀감 있는 곳으로 바꾸어 나갔다. 이처럼 프로그램 실시 현장의 분위기가 따뜻하고 긴밀하였다는 점도 어머니들의 긍정적인 변화에 한 몫을 하였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분위기는 강의 과정에서나 쉬는 시간 틈틈이 자녀와의 관계적 측면, 자신에 관한 문제, 시어머니와의 갈등 등과 같은 실제 생활의 문제를 토로할 수 있게 하였고, 이때 다른 어머니들은 자신의 일처럼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주고 자신의 경험담에 비추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준전문가로서 「부모 참 역량」 컨설턴트가 되고자 하는 어머니들에게 일종의 모의 현장이 되어 자신의 역량을 연마할 실질적 기회가 되었던 점이 본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뿐 아니라 어머니들의 「부모 참 역량」 또한 증진된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실제 Curriel(2014) 및 Harrison과 van Vliet(2013)의 연구에서도 소그룹 단위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머니들이 끊임없는 대화와 협력의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양육지식을 습득해 나갔고, 양육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함께 공유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부모로서의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였으며, 궁극적으로 부모의 문제해결력까지도 강화되었다고 보고된 바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준전문가로서 일련의 훈련을 받은 부모들이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가진 부모들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상호 만족도가 높았다는 Roose(2014)의 연구결과와도 그 맥을 같이한다. 이상의 내용들은 일회성의 대집단 부모교육이 주를 이루는 현실에서(정계숙 외, 2013) 효율적인 부모교육 및 부모 역량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수행 방법 면에서 여러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유아기와 아동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준전문가로서 「부모 참 역량」 컨설턴트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고 그 효과를 알아보는 일련의 연구 중 하나이다. 「부모 참 역량」 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의 효과를 엄격한 실험설계 절차에 따라 분석하지 못한 제한점은 있으나, 질적 자료를 통해 이를 보완하고자 노력함으로써 일차적으로 대상 어머니의

「부모 참 역량」 증진에 대한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또한 부모 교육의 대상이자 컨설턴트인 어머니 자신의 부모 역량 향상 결과를 바탕으로, 부모 역량 증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서 어머니 컨설턴트 양성이라는 새로운 연구 영역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앞으로 부모컨설턴트 양성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기를 기대해본다.

## 참고 문헌

- 강선경 (2011). 부모역할훈련 프로그램이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가족유연성 및 가족관계 향상에 미치는 효과성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34, 109-136.
- 강영순, 김종남 (2012). 자기이해중심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부모효능감, 분노조절 및 자아분화에 미치는 효과. **뇌교육연구**, 10, 106-128.
- 김경화 (2004). 상호교류분석이론에 기초한 부모교육이 어머니의 심리적 자세와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5(1), 105-126.
- 김도기 (2005). 컨설팅 장학에 관한 질적 실험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미숙 (2010). 상호교육분석이론에 기초한 부모교육이 어머니의 자아개념과 대인관계 능력에 미치는 영향. 삼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유순, 이국향 (2010). 부모의 양육행동, 자아존중감, 부모효능감 향상을 위한 해결중심 집단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8(1), 157-184.
- 김은라, 박제국, 정계숙, 박수홍 (2014). 액션러닝을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장애아 부모의 양육 역량에 미치는 효과.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57(2), 45-70.
- 김정섭 (2009). 학습컨설팅의 중요성과 학습 컨설턴트의 역할. **학교심리와 학습컨설팅**, 1(1), 19-33.
- 김현자 (2007). P.E.T.와 현실요법을 접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부모의 의사소통기술과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부모교육연구**, 4(2), 95-121.
- 노영천, 유순화 (2009). 초등자녀의 어머니를 위한 낙관성 증진 프로그램이 어머니와 자녀의 낙관성에 미치는 효과. **상담학연구**, 10(4), 2055-2073.
- 류수민, 이연선, 이소민, 정계숙 (2014). 부모교육 프로그램 실태 비교에 관한 질적 연구: 생애, 레지오, 몬테소리, 국공립 유아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인문학논총**, 34, 365-397.
- 박상완 (2008). 학교 컨설턴트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과제. **교육행정학연구**, 26(2), 343-362.
- 박상희 (2007). 독서치료적 접근에 의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부모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4(2), 1-31.
- 박현숙, 구현영 (2010). 부모역할 핵심역량지원 프로그램이 청소년 학부모의 부모효능감, 부모-자녀 의사소통 및 부모역할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정신간호학회지**, 19(4), 411-419.
- 박효정, 김민조, 김병찬, 홍창남, 김지민 (2010). **학교컨설팅 체제 구축 연구: 학교컨설팅 체제 발전 모형 탐색과 학교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박효정, 신철균, 박선환, 박호근, 김지민 (2011). **학교컨설팅 체제 구축 연구(II): 학교경영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시범 운영 및 생활지도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개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방미란 (2013). 학교 교육과정 컨설턴트의 역량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배지희, 조미영, 봉진영, 김은혜 (2011).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부모교육 및 참여에 대한 부모들의 경험과 기대. **유아교육연구**, 31(3), 279-303.
- 소경희 (2007). 학교교육의 맥락에서 본 ‘역량(competency)’의 의미와 교육과정적 함의. **교육과정연구**, 25(3), 1-21.
- 유연옥, 여혜련 (2004). 효율적인 부모역할훈련이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언어통제유형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13(2), 315-327.
- 이민자, 김용미, 정명수 (2007). 가정통신문을 이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어머니의 부모 효능감,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아동교육**, 16(3), 191-203.
- 이복순, 김경희 (2011). 놀이명상 프로그램이 유아 어머니의 마음챙김과 정서안정 및 대인애착에 미치는 효과. **아동과 권리**, 15(3), 431-454.
- 이원영, 이태영, 강정원 (2008). **영유아교사를 위한 부모교육**. 서울: 북카페.
- 정계숙, 고은경, 박희경, 차지량 (2014).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 참 역량」 척도 개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2(2), 53-75.
- 정계숙, 유미숙, 차지량, 박희경 (2013). 메타분석을 통한 유아기와 아동기 자녀 부모 대상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연구. **한국보육지원학회지**, 9(3), 365-387.
- 정계숙, 유미숙, 차지량, 최은아, 박희경, 김지연 (2014). 액션러닝 기반 부모 역량 증진 실천공동체 프로그램의 효과 연구: 유아와 아동 어머니를 대상으로. **유아교육연구**, 34(2), 501-531.
- 정계숙, 최은실 (2013).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 참 역량 척도」 개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8(3), 225-257.
- 진동섭, 허은정, 이재덕, 김효정, 김정현, 신철균, 이동찬, 김시영 (2008). 학교컨설턴트 교육 프로그램 개발 - S대 중등교육연수원 사례를 중심으로: 학교컨설턴트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행정학연구**, 26(2), 229-257.
- 황해익, 조준오, 김병만 (2012). 보육컨설턴트의 역할과 자질 및 보육컨설팅 요구 영역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 연구. **유아교육학논집**, 16(3), 187-208.
- Curiel, H. (2014). Parent group education to enable “Barrio” parents. *Advances in Social Work*, 15(1), 51-62.
- Doherty, W. J. (2000). *Take back your kids: Confident parenting in turbulent times*. South Bend, IN: Sorin Books.
- Gallessich, J. (1982). *The profession and practice of consultation*.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 Gill, M., Jan, I., Nancy, R., Bryan, B., Charlotte, K., & Ruth, B. (2009). Are specialist registrars fully prepared for the role of consultant? *Clinical Teacher*, 8(2), 87-90.
- Gomby, D. S., Culross, P. L., & Behrman, R. E. (1999). Home visiting: Recent program evaluations—Analysis and recommendations. *The Future of Children*, 9(1), 4-26.
- Harrison, C., & Van Vliet, H. (2013). Learning together: An innovative parent education project to facilitate children’s learning, wellbeing and resilience. *International Research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4(1), 35-52.

- Jester, R. E., & Guinagh, B. J. (1983). The Gordon parent education infant and toddler program. In the consortium for longitudinal studies(Ed.), *As the twig is bent: Lasting effects of preschool programs*. (pp. 103-132).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Katz, K., Jarrett, M., El-Mohandes, A., Schneider, S., McNeely-Johnson, D., & Kiely, M. (2011). Effectiveness of combined home visiting and group intervention for low income African American mothers: The pride in parenting program. *Maternal & Child Health Journal, 15*(1), 75-84.
- Kubr, M. (1996). *Management consulting: A guide to the profession*(3rd Ed.). Geneva: International Labour Office.
- Roose, R. (2014). Parents supporting parents: Implementing a peer parent program for perinatal loss. In *Association of Women's Health, Obstetric and Neonatal Nurses* (June 14-18, 2014). <https://awhonn.confex.com/awhonn/2014/webprogram/paper10539.html>.
- To, S. M., Iu Kan, S. M., Tsoi, K. W., & Chan, T. S. (2013). A qualitative analysis of parents' perceived outcomes and experiences in a parent education program adopting a transformative approach. *Journal of Social Work Practice, 27*(1), 79-94.
- Unger, D. G., & Wandersman, L. P. (1988). A support program for adolescent mothers: Predictors of participation. In D. R. Powell(Ed.), *Parent education as early childhood intervention: Emerging directions in theory, research, and practice*(pp. 105-130). Norwood, NJ: Ablex.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d verify the effectiveness of consultant development program enhancing ‘authentic parental competence’ of the mothers with preschool and school-age children. The objects of this study were 14 mothers with preschool and school-age children. In order to examine the changes of the mother’s parental competence, t-test and qualitative analysis on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is program had a positive effect on all the sub-factors of mother’s ‘authentic parental competence’. Second, mothers mentioned that they changed their parenting competence(change of parenting knowledge, beginning of reflective attitude on their parental role), self-system competence(understanding and respective attitude for the mother herself, self-awareness as a spouse, sweet glances and warm understanding as a parent), social competence(sympathetic understanding of her acquaintances, attempt a role as consultant) after this program. Based on these result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were also discussed.

▶ *Key Words* : 「Authentic Parental Competence」, *parental education program, consultant*

논문투고 2014. 10. 15.  
수정원고접수 2014. 11. 28.  
최종게재결정 2015. 02. 03.